

# GIST-KIER, 배터리 기술교류회 개최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에너지밸리기술원 협력 프로그램으로 5일(화) 열려... 산·학·연·관 관계자 40여 명 참석해 배터리 분야 최신기술 동향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 "향후 컨소시엄 구성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과제 기획으로 결실 맺을 것"



▲ 지난 12월 5일(목) KIER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에서 열린 '2024 산·학·연·관 배터리 기술교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2월 5일(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에서 '2024 산·학·연·관 배터리 기술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GIST,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차세대에너지연구소(소장 이상한)와 에너지밸리기술원(원장 이광희), KIER이 공동주관하여 성사된 이번 기술교류회는 GIST와 KIER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배터리 분야의 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학·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배터리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관련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의 참석자가 광주시의 배터리 정책 방향과 지자체 배터리 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냈으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참석자는 투자지구에 대한 소개와 광주지역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의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KIER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소개 및 견학에 이어 20건의 기술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연구소 견학을 통해 첨단 기술을 직접 접하며 배터리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기술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중제 센터장(KIER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장재원 차장(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장형진 센터장(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논의 및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상한 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은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배터리 분야의 뜻깊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며,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과제 기획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에너지밸리기술원은 2025년에도 에너지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과 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